

OECD Journal on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 - 2007 Report
Volume 9 Issue 1

Summary in Korean

OECD 개발 저널
개발 협력 2007 년도 보고서 제 9 권 1 호
국어 개요

- 개발 협력 보고서는 국제 원조의 최신 추세를 살펴보는 연간 보고서이다.
- 원조목표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12 개 성과관리지표로 측정하는데 금년에는 12 개 지표 중 5 개만이 현저한 향상을 보인다.
- 보고서에서는 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원조운영방식에 관한 회원국 동료검토로 얻은 교훈점을 12 가지 제시한다.

연간 개발협력 보고서는 최근의 대외원조 추세를 민간부문에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이며 지난 해의 개발협력 관련 국제통계를 가장 광범위하게 실으면서 데이터 분석도 시도한다. 통계 부록에서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및 여타 원조공여국에 관한 최신 정보를 명확히 제공한다.

성과관리 채점표: 12 개의 향상 측정 지표

동 보고서에서는 2003 년 중반 이후의 DAC 위원회의 공적개발원조 진척을 살펴보고 개발협력 성과 채점을 목적으로 명시된 12 여 가지의 측정 지표들을 동료검토 하는데 원조 규모, 원조 할당, 취약한 여건, 원조 효과성, 수원국의 노력, 달성 결과의 6 개 분야로 구분한다. 마지막 지표는 밀레니엄개발목표 달성 진전을 나타낸다.

원조 규모

측정지표 1: 공여국의 순지급액이 최소 750 억불에 이르게 하기 (2002 년도 가격/환율 기준). **목표달성**

2006 년도 총 지급액은 778 억불로 이라크 원조를 제하더라도 707 억불이었다.

측정지표 2: 원조 증액의 대부분을 개도경제국의 순이전 자산으로 활용하기. **목표미달**

2002 년 기준의 575 억불에서 778 억불(2002 년도 달러환율 기준)로 늘어난 원조 증액은 대부분이 부채탕감에 활용되어 수많은 국가들이 최근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채탕감이 줄게 되면서 DAC 회원국들의 공약에 내재된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원조사업 구축이 절실하다(측정지표 1 의 시뮬레이션 표 참조).

원조 할당

측정지표 3: 최빈국과 여타 저소득국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비중 늘리기. **목표달성**

양자원조 순액에서 최빈국에 간 원조 비중은 2002-2006 년 40%에서 46%로 늘었고 원조 총액에서 비중은 47%에서 49%로 늘었다. 2006 년 이라크 원조 증대와 나이지리아의 상당한 부채 탕감이 이 증가추이를 설명하는 요인이다.

지역별로 보면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원조 분야에서 아프리카 비중이 현저히 늘고 있으나 2005 년 G8 정상회의에서 서약한 2004-2010 년 아프리카 개발원조 배증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아직 갈길이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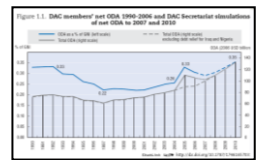
측정지표 4: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층에 속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룬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개발원조 비중 늘리기. **목표미달**

공여국들은 좋은 성과를 낸 국가를 보상하는가? 양자원조 순액에서 세계은행 IRAI 지표의 상위 40% 국가들이(전부 최빈국 아니면 기타 저소득국임) 받은 원조 비중을 보면 실질 원조규모는 상당히 증가했지만 이 질문 답은 “아니다”이다. 실제로 상기 국가들의 비중은 2002-2006 년 사이 19%에서 17%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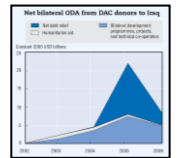
측정지표 5: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은 원조 전체 대비 비중이 줄도록 하기. **목표 미달**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 수요는 감소가 예기됐음에도 실제로는 원조 전체 대비 비중이 2002-2006 년 5%에서 6%로 조금 더 늘었다. 실질

[표 1.1] 1990-2006 DAC 회원국 ODA 총액, 2007-2010 DAC 사무국 시뮬레이션 ODA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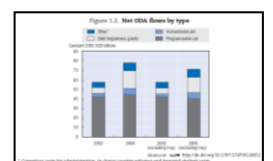
[그림 1.2.] 대이라크 DAC 양자간 ODA 총액



[박스 2] 이라크가 상위 5 위 수여국에 속하는 공여국

Box 2.1: ODA to Iraq (USD)	
Main donors for whom Iraq is among the top five recipients (ODA as average per recipient)	
By net ODA flow	Year
Germany	2002
France	2002
Japan	2002
USA	2002
UK	2002
Germany	2003
France	2003
Japan	2003
USA	2003
UK	2003
Germany	2004
France	2004
Japan	2004
USA	2004
UK	2004
Germany	2005
France	2005
Japan	2005
USA	2005
UK	2005
Germany	2006
France	2006
Japan	2006
USA	2006
UK	2006

[표 2] 유형별 ODA 총유출입



[표 3] 최빈국, 저소득국

규모로 보면 2002-2006 년간 90%의 절대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취약한 여건

측정지표 6: 성과가 부진하지만 효과적인 원조 이전이 가능한 국가에 한해 충분히 고려된 개입방안 실시하기. **불분명**
 점점 더 많은 극빈곤층과 최악의 사회환경여건의 인구들이 “취약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로 향상을 보인 사례가 있긴 하지만 공여국 간의 공조와 현지 자치 관할기관 설립 지원을 개선해야 되는 난해한 상황에서 원조 공여국 개입의 효과성을 최대화하도록 추진할 일이 아직 많다.

원조 효과성

측정지표 7: 원조의 대부분을 비조건부로 공여하기. **목표달성**
 거의 목표수준에 가깝게 향상됐다. 대부분의 DAC 회원국의 양자간 원조사업의 전체 또는 대부분이 비조건부 원조다. DAC 회원국의 비조건부로 기록된 재정지원 비중은 2002-2006 년 42.5%에서 53.0%로 늘었으나 대부분의 재정지원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만큼 실제 규모는 가려진 상태다. 더군다나 비조건부 재정지원으로 자금조달된 계약의 대부분이 여전히 원조 공여국에게 돌아가고 있다.

측정지표 8: 보다 많은 원조를 원조수여국의 우선순위, 프로그램 및 제도와 뚜렷이 일치시키고 수여국 예산에 기입토록 하기. **불분명**
 각 공여국이 수여국의 정책·제도와 원조 공여를 일치하는 데서 이룬 향상은 자국 예산에 기록된 원조 비중으로 측정한다. 2006 년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마다 큰 차이가 드러나는데 DAC 회원국 간의 차는 24%-87% 사이고 수여국은 32-99% 간의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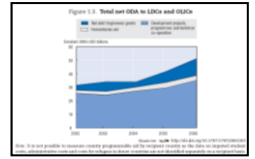
측정지표 9: 원조조율지표는 2002/2003 년을 기준으로 비약적인 발전에 이르게 하기. **불분명**
 원조조율은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공여국들이 공동작업하는 방식이며 공여국과 수여국을 모두 관련한다. 유용한 원조조율 지표로 공여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분석연구작업 비율을 참고할 수 있다. DAC 회원국별로 공동작업 비율은 12%에서 80%까지의 차를 보인다.

측정지표 10: 지원조정 개선, 국가시스템 활용 증대, 현지 또는 “개도국 직업능력” 활용 증대 등에 할애한 지출을 뜻하는 기술협력에 대한 지출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임을 입증하기. **불분명**
 “기술협력”이라는 총칭적 용어에 해당되는 원조 유형들이 무척 다양해서 공여국이나 수여국이나 기술협력 지출 측정이 어렵다. 이 점에 관한 개선 전망은 당분간 불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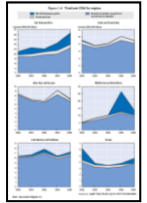
수여국 노력

측정지표 11: 대외 원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수여국은 서비스 공급 확장과 국내소득 증대를 모색하기. **목표달성**
 원조는 보건·교육 분야의 공적지출과 경상수입(GNI 대비)을 통한 각국의 경제개발 노력을 보충할뿐이다. 이 측정 지표의 정확한 평가는 어려우나 소득 증대 차원에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2000-2004 년 약 15%에서 18%로 증대). 특히 2001-2006 년 사하라이남의 소득증대율은 ODA 증대율을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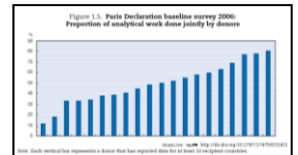
ODA 총액



[표 4] 지역별 ODA 총액



[표 5] 2006년 파리 선언 기준표: 공여국 공동 분석 작업 비중



결과 달성

측정 지표 12: 지원 확대와 효과성 증진은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 중에서도 특히 사하라 이남이 진척을 보는 방향으로 이용하기. 어느 정도 진척됐으나 역부족임

여러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지표는 그 진척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3 가지 요소를 감안한다:

- **충분히 믿을 만한 기본통계 정보.** 여전히 많은 지표들이 안고 있는 문제다.
- **진척도의 명확한 의미.** MDGs 는 2000 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선정됐으나 사실상 기준연도는 1990 년이다. 따라서 대개 경우에 25 년 기간의 첫 15 해 성과를 살펴본다.
- **원조와 원조성과 간의 그럴듯한 연계성.** 수여국 자체 노력이 성과진척의 주된 기여요인이었을 수 있는 만큼 원조개입이 진척이룩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 퇴치 목표 달성: 현추세가 지속되면 소득빈곤 퇴치 목표는 2015 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하루 1 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인구가 10 억명 이하로 떨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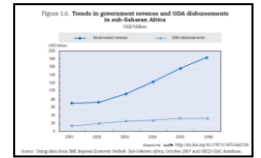
여타 분야의 진척도: 나머지 밀레니엄 목표들은 전세계적으로나 사하라이남과 태평양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2015 년까지 달성될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최근에 급속 진전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 사하라이남의 절대빈곤 인구 수는 안정된 상태로 빈곤율은 2000 년 이후 거의 6%가 하락했다.
- 1991-2005 년 초등교육 등록율은 80%에서 88%로 높아졌고 이 분야에서 개도국의 진척은 대개가 1999 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다.
- 홍역으로 사망한 전세계 인구는 2000-2006 년 757,000 에서 242,000 으로 68% 줄었고 아프리카는 동기간에 거의 91%가 줄었다.
- 남동유럽, 독립국가연합 등 “체제전환국”이 2000 년 이후로 보인 빈곤 감소세는 이들이 90 년대 겪었던 증가세만큼의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진척사항의 공로를 대외 원조에게 돌릴 수 있는가?

원조가 유일한 기여요소가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보건과 기본교육에 대한 원조 확대는 수많은 빈곤국이 이 분야에서 진척을 이루는 데 확실히 기여했으며 빈곤감소는 드디어 뚜렷이 이루어졌다. 빈곤 감소는 몇 년에 걸친 원조지지 정책 개혁, 지배구조 및 투자 개선 등의 복합적 영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표 6] 정부세입 추위, 사하라이남에 공여된 ODA 총 지급액 (10 억불 단위, 경상가격)



나아갈 길: 무역 원조

지구화된 오늘의 세계에서 무역이 유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써 빈곤감소에 필수 요소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기본 능력을 갖추지 못해 무역기회가 가져오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개도국도 꽤 있다. 이에 맞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원칙에 근거, 대부분의 원조공여국들은 양적, 질적으로 나은 무역원조 공여에 역점을 두고 제도 경감, 특정제도 설립, 전문팀 구성, 운영 지도 등에 나서는 중이다.

DAC 회원국 동료검토의 경험사례에서 얻은 12 개 교훈

2006 년 DAC 회원국은 경제개발 명목하 1000 억불 이상의 공적자금을 지불했는데 이는 전세계의 총 ODA 지출 추정치의 90%에 맞먹는다. DAC 위원회는 회원국 동료검토 과정을 통해 수많은 문제사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를 가졌던 바 이를 토대로 개발성과 달성에 효과적인 원조 운영방식에 관한 12 가지 교훈을 종합해 냈다. 이는 전략, 조직운영, 원조제공 운영의 3 개 범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략

교훈 1. 적절한 법적, 정치적 토대 모색

개발협력 취지하, 포괄적인 주인의식과 충분한 기간 동안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최고위급 성명을 법률 또는 기타 형식으로 채택한다.

교훈 2. 서로 경쟁하는 국내 이해관계 조정

단기적인 압력 때문에 장기의 효과적인 개발을 피하는 공동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훈 3. 개발정책의 일관성 증진

위임사항을 명료히 설정하고 빈곤국가에 미친 정책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교훈 4. 국민 인식

원조지원으로 재원조달된 여러 활동 결과를 제공, 측정 및 홍보하는 데에 투자한다.

조직 운영

최근의 회원국 동료검토는 원조 효과성과 조직개혁이 점점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교훈 5. 잘되는 선두 구조 확인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선임경력과 공적 책임을 가진 인물에게 뚜렷한 정치적 임무를 배당한다.

교훈 6. 기구 분산 해소

양자원조 구조를 합리화하여 국가 차원의 활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교훈 7. 다자 기구의 기부금 운영

다방면에 걸친 다자간 원조를 담당하는 여러 책임자 간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한다.

교훈 8. 분야별 운영 분산화

분야별 책무 분산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능률적인 고품질의

지원제도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원조공여 운영

교훈 9. 개발원조 확대 운영

공여국들이 원조 효과성 증진으로 기구 소속원 1 인당 부득이 더 많은 원조를 공여케 된 만큼 근본적인 원조공여 개혁이 절실할 것이다.

교훈 10. 국가별, 분야별 중점 접근방식 유지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이 더 소수의 국가, 분야, 특히 사업부문에 원조를 집중, 제공하는 것이 좋다.

교훈 11. 성과위주 경영, 평가 및 품질 관리

성과위주의 경영문화가 조성되면 수여국 책임구조가 약화되지 않고 장려되는 방향으로 유인책을 마련한다.

교훈 12. 인적자원관리 우선

어느 기구든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높은 자격과 동기부여를 갖춘 현지 인력과 해외주재 인력을 확보,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

원조 효과성 증진: 보건 분야에서 얻은 교훈

1999-2005 년 보건분야의 개발원조는 60 억불에서 134 억불로 늘면서 보건분야의 MDG 실현을 방해했던 장애원인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 결과, 공여국과 파트너국들은 활동 추진방식의 변화를 모색했으며 파리선언을 토대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원조 효과성 개선 목적의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됐고 특히 아동사망률 감소, 말라리아 및 폐렴 통제, 에이즈 치료 차원에 뚜렷한 향상을 이루었다. 이러한 가운데 잘되는 진척사항은 꾸준히 계속 감독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The full Report can be accessed on www.sourceoecd.org/developmentreport

© OECD 2008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